

국내 정보이용자연구 동향분석*

Analyzing the Trends of the Korean Information User Studies

이지연 (Jee Yeon Lee)**

김준섭 (Junsup Kim)***

초 록

정보이용자연구는 인간과 인문환경을 대상으로 삼는 연구 분야로서, 본질적으로 연구의 활용성과 확장성이 높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보이용자연구에 대한 연구동향과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정보이용자연구의 가치 있는 연구 결과물들의 공유와 확산이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 5개에 게재된 5,392편의 논문들 중, 정보이용자연구를 주제로 또는 정보이용자연구를 방법론으로 활용하여 생산된 논문들을 전수조사한 다음, 주제 분류표 및 분류 원칙을 설계하여 분류하고, 국내 정보이용자연구의 생산성과 연구동향을 질적인 내용 분석을 가미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보이용자연구는 도서관 주제가 가장 많았다. 또한 정보이용자연구 결과물을 활용하여, 타 인접 학문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학계에서의 또는 사회 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s a type of humanities discipline, information user studies tend to have influence and applicability on the related research fields. However, research trends and status of the user studies in Korea have not been extensively explored and thus resulted in limited sharing of the research outcomes. In this research, all papers related to the information user studies were selected from 5,392 articles reported in the fiv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s. The chosen paper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ubject categories then qualitatively analyzed in terms of research productivity and trends. Library was the main theme of the information user studies. A number of suggestions were generated to apply the information user studies outcomes in solving academic as well as wider societal problems.

키워드: 정보이용자연구, 동향분석, 연구동향, 연구활용
information user studies,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search trends,
research utilization

* 이 연구는 2016년 연세대학교 미래선도연구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lee01@yonsei.ac.kr) (교신저자)

***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jands90@yonsei.ac.kr) (공동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6년 11월 28일 ■ 최초심사일자: 2016년 12월 7일 ■ 게재확정일자: 2016년 12월 16일

■ 정보관리학회지, 33(4), 201-223, 2016. [http://dx.doi.org/10.3743/KOSIM.2016.33.4.201]

1. 서론

지식정보화시대의 핵심은 인간에게 있다. 가치가 뛰어난 정보라는 것은,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라고 판단한 것이고, 그러한 판단에 따라 정보이용의 주체인 인간이 정보에 가치를 부여하여 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인지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행동과학적 영역이 융합된 정보이용자연구는 이용자측면에서의 정보이용 극대화, 정보공급자측면에서의 정보제공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 분야라 할 수 있다.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비슷한 정보환경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지역, 공동체, 나아가 인간에게, 그 정보라는 것이 항상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고 활용 정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인간 개인 각자가 가지는 특수한 의식 구조와 언어 구조에 따라 현실을 재구성하는 것처럼, 정보이용과 정보이용을 둘러싼 인간 중심적인 환경 또한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쉬운 예로써, 빈민가의 이용자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와 이용 양상 그리고 정보 환경이 최첨단 금융시장의 이용자들에게는 그 가치가 현저하게 축소될 것이라는 예를 들 수 있다. 따라서 각 개인 즉, 정보이용자는 정보의 의미를 구현하고 있는 수많은 개별적인 장소이자 주체성과 능동성을 늘 함께 내포하고 있는 연구대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이용과 정보제공은, 각 개인에 대한 이해는 물론, 연구대상이 속한 현실의 환경과 맥락을 늘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며, 그러한 출발점과 종착점은 바로 정보이용자연구라 할 수 있다.

정보이용자연구는 구체적으로 정보 이용, 추

구, 활용에 있어서 인간의 인지, 사고, 행동, 그리고 그 결과 등을 비롯하여 주변 환경과 맥락을 연구하며, 인간을 그 중심에 둔다. 이러한 정보이용자연구를 순차적인 시간에 따라 연구의 생산 양상을 살피고, 연구 내용에 대해 질적인 동향분석을 병행한다는 것은, 정보이용자연구가 토대를 두고 있는 공동체가 인간(이용자)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정보이용자연구는 항상 인간과 인문 환경을 연구의 중심에 두는 연구이며 따라서 속한 사회와의 접점이 광대한 연구 분야라는 것을 주지한다면, 정보이용자연구의 연구 결과는 문헌정보학 분야 이외의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학술 영역에서의 동향분석이란 과거와 현재까지의 학술 연구들의 과정과 결과물을 파악함으로써, 특정 학술 분야에서의 연구 패턴과 경향을 분석하고 향후 해당 분야의 연구방향 설정과 숙고에 있어 지침이 되는 연구이다. 이지연(2006)에 따르면 문헌정보학에서의 정보이용자연구는 도서관업무 및 정보서비스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해의 기초가 되는 영역으로, 정보서비스, 정보시스템, 도서관 정책결정 및 경영 등의 영역에서 고려되고 적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이용자연구에서 다루는 세부 주제가 무엇인지 또는 세부 주제에서 방법론으로써 활용된 정보이용자연구의 내용과 그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연구가 속한 학문 영역에서 구체적인 연구 방향과 흐름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향후 문헌정보학계를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정보이용자연구를 수행하거나 또 연구 결과물을 활용할 연구자들이 학

술적으로 더 기여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연구질문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 연구질문 1. 내용분석을 통해 파악되는 국내 문헌정보학 정보이용자연구의 주요한 세부 주제는 무엇이며 그 시기별 양상(1980년~2015년)은 어떠한가?

1-1. 정보이용자연구가 가장 활발한 문헌정보학 세부 주제는 무엇인가?

1-2. 시기별 정보이용자연구의 주된 연구 내용은 무엇이며,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 연구질문 2. 80년대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국내 정보이용자연구가 문헌정보학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어떠한가?

2-1. 문헌정보학 관련 학회지 다섯 곳에 게재된(1980년~2015년 사이) 학술 논문에서 정보이용자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2-2. 문헌정보학 관련 학회지 다섯 곳에 게재된 정보이용자연구가 연구 기간 중 가장 크게 부상된 시기는 언제이며, 전반적인 연구 생산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본 연구는 정보이용자연구 동향분석을 통해 오늘날 정보이용자연구의 생산성과, 문헌정보학계에서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정보이용자연구의 연구동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표제와 키워드뿐만 아니라 초록과 본문에 대해 연구자들

이 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정보이용자연구 학술논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를 파악하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기계적인 문헌 분류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양적인 연구동향 분석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정보이용자연구에 대한 깊이 있는 질적인 내용 분석(Case, 2012)에 대응되는 국내 정보이용자연구 동향분석의 시발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질적 연구는 문헌정보학 외의 타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정보이용자연구의 파급력을 증대시키고 정보이용자연구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2. 선행연구

미국과 유럽의 정보이용자연구는 2차 대전 후 과학기술분야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 및 이용을 식별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정보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으리라는 실질적인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권은경, 1984). 1960년대까지는 이렇게 특수 분야 연구자 또는 기술자들의 정보 요구와 이용에 대한 연구가 학술지에 정기적으로 발표되었다(Case, 2012). 초창기 정보이용자연구는 정보이용의 부산물 또는 수단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이는 시스템 중심적 접근의 정보이용자연구로 지칭되었다(Choo, 1993). 이러한 정보이용자연구 경향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정보 이용자, 탐색자, 창조자, 해석자로서의 인간을 탐구하는 인간 중심적인 연구 경향으로 그 중심이 이동했다(Case, 2012).

Julien(1997, 2000, 2011, 2014)은 지속적으로 문헌정보학에서의 정보이용자연구 동향분석을 수행해 왔다. 특히 Julien은 학술논문에 대한 양적인 내용 분석과 중단 분석을 병행하여 영어로 발표된 정보이용자연구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약 20년에 걸친, 네 편의 정보이용자연구 동향분석을 통해, 정보이용자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유형(실무자, 학술기관 소속 연구자), 인용분석을 통한 정보이용자연구의 학제성, 정보이용자연구의 연구방법, 정보이용자연구의 대상 집단, 연구의 초점(이용자의 인식, 시스템 디자인, 정보행동의 정서적, 감정적인 측면) 등을 파악했다. 정보이용자연구 동향분석에 있어서, Case(2012)의 포괄적이고 질적인 연구는 풍성하고 깊이 있는 설명을 통해 정보이용자연구의 내포를 심화시켜 주는 반면, Julien의 양적인 분석은 수치를 활용함으로써 현재까지의 연구 흐름을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앞으로의 연구 수행에 있어 이정표와도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국내에서의 이와 같은 정보이용자연구에 대한 동향분석은, 해외 정보이용자연구에 대한 개관 및 연구 현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한복희(1984)는 정보이용자연구의 배경을 살펴보고, 정보이용자연구의 연구 영역 규명을 시도하였으며 문헌정보학에서의 정보이용자연구 의의를 고찰하였다. 같은 시기에 권은경(1984)은 정보이용자연구가 시스템 중심적인 연구에서 인간의 정보요구 및 행태와 주변 환경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는 발전적인 면모를 파악했으며, 그동안의 정보이용자연구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8년 후, 한복희(1992)는 양적인 연구방법론

을 취하여 1980~90년 사이의 국내 정보이용자연구의 동향분석을 실시했다. 표제에 정보이용자연구 관련 용어들이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통해 정보이용자연구인지 판단한 다음, 발표매체, 주제분석, 저자의 논문 생산성, 연구방법, 이용자연구 대상이 속한 집단 등을 분석한 것이다. 이어서 2003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 1991~2003년 사이의 정보이용자연구 논문들의 내용분석을 실시하고, 국내 정보이용자연구의 연구주제,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가설설정여부 등을 분석했다.

한복희(2003)의 연구 이후, 국내 정보이용자연구가 1990년대 중·후반을 거쳐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연구 분야, 연구방법론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정보이용자연구 동향분석은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이었던 5개 문헌정보학 학술지(정보관리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기록학연구)에서 더 이상 발표되지 않았다(학위논문, 학술대회 자료집 등은 제외). 이에 따라 정보이용자연구의 연구 방향성, 지향점, 확장가능성 등 연구 분야로서의 잠재력의 많은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활용도 높은 연구 결과들의 공유와 확산이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정보행태 모형의 연구 경향 분석 또는 모형 간의 비교 분석(김갑선, 2005; 이지수, 2013)이나, 문헌정보학 동향분석 연구에서 세부 분야로서의 정보이용자연구 수행 횟수에 대한 파악(서은경, 1997, 2010; 손정표, 2003; 정동열, 김성진, 2003; 조찬식, 1999)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문헌정보학의 거의 모든 세부 분야에서 수행될 수 있는 정보이용자연구를 단순 하위 세부 분야로 취급하기

보다는 Julien과 한복희와 같이 독립적인 연구 영역이자 방법론으로 다루어, 그 동향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연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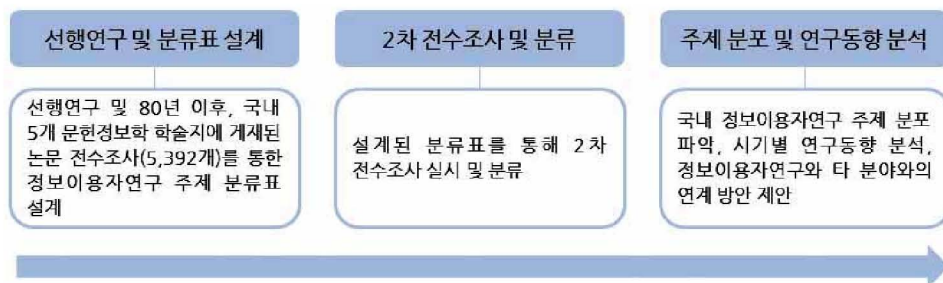
본 연구는 1980년부터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다섯 개의 학회지[정보관리학회지(1984~2015), 한국문헌정보학회지(1980~2015), 한국비블리아학회지(1980~2015),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1980~2015), 기록학연구(2000~2015)]에 게재된 학술논문(정보관리학회지 1,222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469편, 한국비블리아학회지 734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521편, 기록학연구 446편, 총 5,392편, <표 1> 참조) 중,

연구의 주된 방법론 또는 보조적인 방법론으로 정보이용자연구를 채택한 연구들과 더불어, 이용과 이용자를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거나 정보이용자연구 이론을 중심으로 전개해 간 연구들에 대한 질적, 양적 동향분석이다.

전반적인 연구절차는 <그림 1>과 같으며, 1980년 이후 국내 5개 문헌정보학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전수조사(5,392개) 하여 <표 2>와 같은 정부이용자연구 분류표를 설계하였다. 정보이용자연구 분류표는 6개의 대분류(이론, 정보이용/추구, 도서관, 독서/교육, 정보(시스템) 설계 및 평가, 정보검색)와 27개의 중분류로 구성되었다. 이후 2차 전수조사에서는, 앞서 설계된 분류표에 맞추어 정보이용자연구들의 주제 세분화를 시도했다. 분류 대상이 된 학술논문의 주제 분석은 연구자 두 명이 각각 독립

<표 1> 분류 대상 학술논문 수

등재지	80~84	85~89	90~94	95~99	00~04	05~09	10~15	합계
정보관리학회지	10	63	72	123	262	331	361	1,22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	51	103	176	277	382	448	1,46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	-	16	36	124	171	367	73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	37	52	183	325	443	442	1,521
기록학연구	-	-	-	-	116	135	195	446
합계	101	151	243	518	1,104	1,462	1,813	5,392



<그림 1> 전반적인 연구절차

〈표 2〉 국내 정보이용자연구 분류표

연구 분야		
대분류	중분류	
이용자연구 이론	• 이론 고찰 • 연구동향	
정보이용/추구	• 정보이용 • 정보문해 • 정보추구행태 • 정보이용행태 • 정보탐색행태 • 정보요구 • 정보빈곤 • 정보 접근 · 이용조사 • 정보전문가	
도서관	일반도서관 (공공, 전문, 정보센터, 기록관)	• 이용자 • 이용 행 · 실태 · 만족도 • 각종 정보서비스 • 장서관리
	학교 및 대학	• 도서관 경영
독서/교육		• 독서활용교육 • 독서활동 • 독서개발
정보(시스템) 설계 및 평가	이용자 이론	• HCI • 이용자 인터페이스
	이용자연구	• 웹페이지 및 정보시스템 이용 · 설계 · 디자인 · 상호작용 · 평가 • 정보조직 • 이용성평가
정보검색	이용자 이론	• 정보검색
	이용자연구	• 성능평가 • 검색시스템(엔진)

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일치도로 측정한 신뢰도는 약 79.6%로 나타났다.

한편, 주제 분석과 연구 분야 분류는 논문의 초록 및 키워드와 함께 본문 내용 분석을 기준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정보이용자연구 동향에서 표제만으로 이용자연구 여부를 판단한 연구방법(한복희, 1992, 2003)을 보완하는 동시에, 오늘날 시점에서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의 정보이용자연구의 동향과 실태 그리고 외연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일

례로, '데이터베이스 실험검색을 통한 정보스캐닝에 관한 연구(유사라, 박민영, 2000)'는 표제에 이용, 이용자, 정보이용 및 요구, 이용행태 등 이용자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가 삽입되어 있지 않지만, 정보검색 과정에서 이용자가 실제로 어려움을 느끼는 요인을 파악하는 실증적인 이용자연구였다.

대분류에 사용된 '이용자 이론', '이용자연구' 구분의 경우, 실증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이용, 이용자, 이용자 이론을 지향한 연구의 경우 전자에

포함시켰으며,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증적인 연구의 경우 후자에 포함된다. 특히 이용자 이론에 분류된 논문이 81편에 이른 것으로 보아, 해당 분류 항목을 설계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이로 인해 정보이용자연구의 동향 파악이 한층 심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보검색 영역에서 ‘이용자 이론’에 속하는 연구를 살펴보자면 ‘이용자기반 접근의 개념 변화와 정보검색시스템 설계요소의 도출(노진구, 2000)’이 있다. 노진구는 이용자기반 정보검색시스템의 기본 개념을 고찰하고, 이용자기반 정보검색시스템 설계요소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연구의 수행과 최종 목적에 있어서 이용자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동향분석에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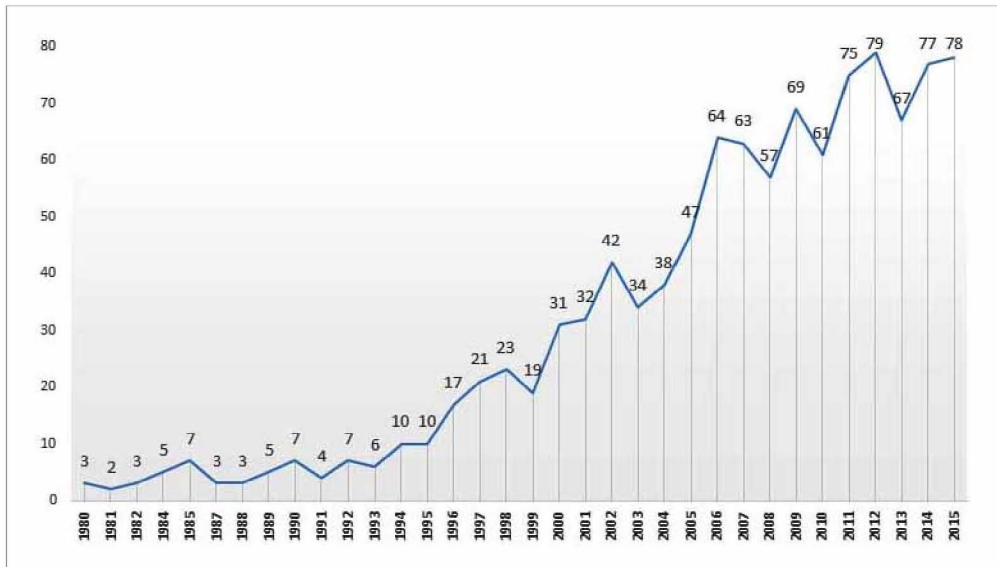
또한 정보(시스템) 설계 및 평가 영역에서 ‘이용자 이론’에 속하는 연구의 예는 ‘공공도서관의 노인용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관한 연구(김선희, 2003)’를 들 수 있다. 김선희는 공공도서관의 노인 이용자들을 위한 웹 페이지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노인 인구의 특징과 정보활동에서의 장애 요인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 또한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연구를 관통하는 주제가 이용자이기 때문에 ‘이용자 이론’ 연구로 분류되었다.

여러 개의 분야가 혼합되어 연구된 경우에는 해당 논문 내에서 가장 우세한 분야 또는 연구 방법론을 우선하여 분류하였다. ‘Open API 기반 메타 검색시스템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구중영, 이응봉, 2009)’의 경우 도서관 온라인 목록, 검색시스템, 이용성평가 등의 연구주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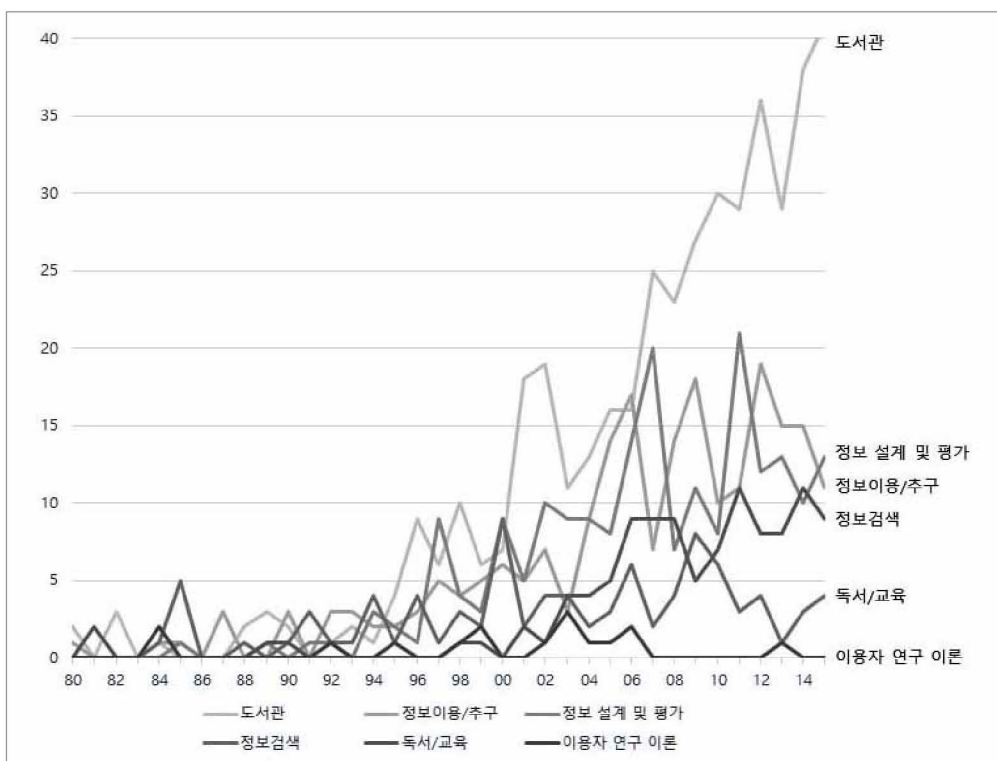
중첩되지만, 실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용성평가를 연구 방법으로써 사용하였으므로 ‘정보 설계 및 평가_이용자연구’에 분류되었다. 또한 두 분야가 동등하게 다루어진 경우에는, 두 분야가 동시에 속하는 상위 분야에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A comparison of Web searching and library system searching: Perceived difficulty, self-efficacy, and effort(Rieh, 2007)’ 경우 웹 검색엔진 이용행위와 도서관정보탐색시스템 이용행위의 비교연구를 수행했다. 따라서 이 논문의 경우 두 주제를 포괄하는 상위 영역인 ‘정보이용/추구 - 정보탐색행태’로 분류하였다.

4. 분석 결과

5,392편 논문의 주제를 분석하고 분류한 결과 정보이용자연구를 방법론 또는 주제로 삼은 논문은 총 1,069편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 36년간 문헌정보학 5개 학술지에 발표된 모든 학술논문 중 약 19.8%를 차지하는 양으로, 정보이용자연구가 문헌정보학 영역에서의 주요한 연구 분야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연구 기간 중 국내의 정보이용자연구는 1995년 이전까지는 매년 10건 이하의 이용자연구 주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1996년은 전년도에 비해 70% 성장하였는데, 이후 정보이용자연구의 양적인 성장은 90년대 중·후반부터 큰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1999년, 2003년, 2008년, 2010년, 2013년에 약간의 감소를 보이지만, 큰 흐름으로 보아 오늘날까지의 국내 정보이용자연구는 그 증가세가 확연하다는 것을 <그림 2>와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국내 정보이용자연구 논문의 연도별 분포



〈그림 3〉 국내 정보이용자연구 세부 주제 분야의 연도별 분포

특히 도서관 연구 분야가 정보이용자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문헌정보학 학술지에서 도서관이 주요 주제이자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 입장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도서관계의 동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80년대의 정보이용자연구(총 31편) 중, 해외 정보이용자연구의 추세와 연구영역, 이론과 실재를 고찰하는 정보이용자연구 이론에 대한 논문이 두 편 발표되었다. 80년대는 국내 정보이용자연구의 초창기였다. 한복희(2003)에 의하면 1959년부터 1981년까지 도서관학계 연구동향에서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을 포함한 252편의 논문 중 중 이용자연구는 12편으로 8%를 차지했다. 80년대 이전 30년 동안에 걸쳐 1,000여 편의 정보요구 및 정보이용행동을 연구하는 논문들이 생산되었던 해외 연구 성과(권은경, 1984)와 양적으로만 비교해 본다면, 80년대까지는 아직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정

보이용자연구가 연구 주제, 방법론으로써 자리 잡지 못하고 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80년대 연구대상 학술지들에서 발표된 총 학술논문 편수는 252편이고, 정보이용자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2.3%에 그쳤다. 이는 <표 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간이 갈수록 정보이용자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한다는 경향과 비교해 본다면, 국내에서의 80년대 정보이용자연구는 태동하기 시작한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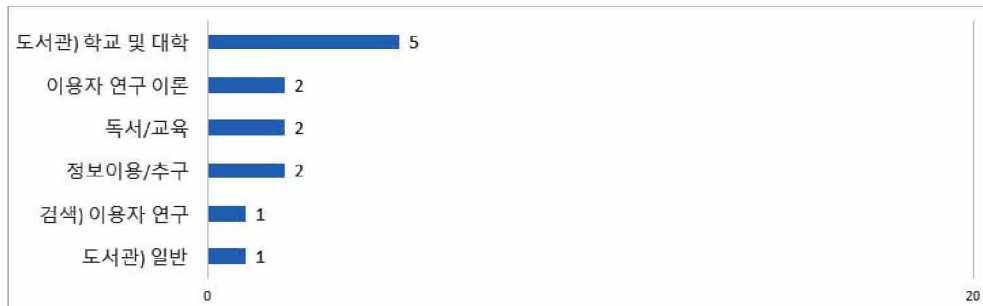
80년대 초반의 정보이용자연구를 살펴보자면, 이용자 이론 연구와 더불어, 대학도서관의 목록이용연구, 학교도서관의 비이용 요인 연구, 연구활동에서의 비공식커뮤니케이션, 연구기관 이용자들의 마이크로자료 이용 연구 등 정보이용자들의 정보추구와 정보이용, 행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었다. 독서/교육에서는 아동의 독서실태에 대한 연구, 독서를 통한 사고력 개발 지도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그림 4> 참조).

80년대 중·후반의 정보이용자연구는 기존 도서관 주제에서의 정보이용자연구가 지속되

<표 3> 국내 문헌정보학 정보이용자연구 주제 분포

연구 분야		연구년도						
		1980~84	85~89	90~94	95~99	2000~04	05~09	10~15
총 학술논문 수		101	151	243	518	1,104	1,462	1,813
정보이용자연구 논문 ÷ 총 학술논문 수		12.9%	12.0%	14.0%	17.4%	16.0%	20.5%	24.1%
이용자연구 이론		2	-	1	4	5	3	1
정보이용/추구		2	4	11	19	30	70	81
도서관	일반 도서관	1	3	6	22	48	67	138
	학교 및 대학	5	2	-	12	21	40	65
독서/교육		2	1	1	2	11	37	54
정보(시스템) 설계 및 평가	이용자 이론	-	1	4	12	12	17	21
	이용자연구	-	1	1	8	30	42	56
정보검색	이용자 이론	-	1	5	1	2	2	3
	이용자연구	1	5	5	10	19	21	18
합계		13	18	34	90	177	300	437

(단위: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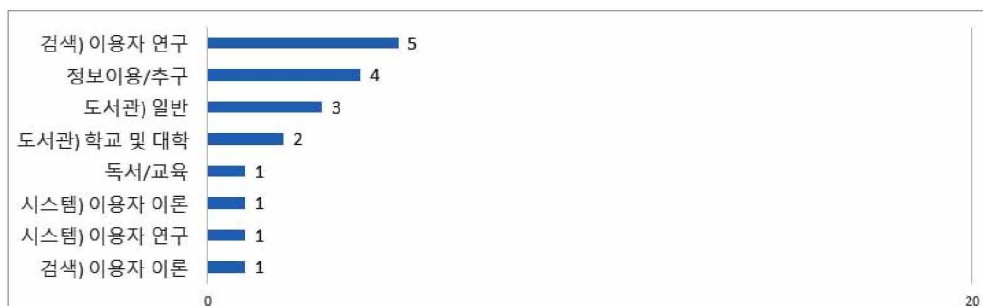
〈그림 4〉 1980~84년의 정보이용자연구 주제 분포

었는데, 특히 이용자 교육이 주된 주제였다. 또한 물리학자, 생물학자 등 연구자들의 학술정보 이용, 비공식커뮤니케이션 활용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정보검색 및 정보 설계 및 평가 주제에서 정보이용자연구가 전 시기와 대비해서 대두된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의 검색시스템 활용에 대한 연구, 이용자가 작성한 검색 질문을 활용한 실험 또는 이용자피드백을 통한 검색전략 연구 등이 정보검색 분야에서 발표되었다(〈그림 5〉 참조).

90년대 초반의 정보이용자연구는 재미한인의 정보추구행태, 중소기업에서의 정보요구와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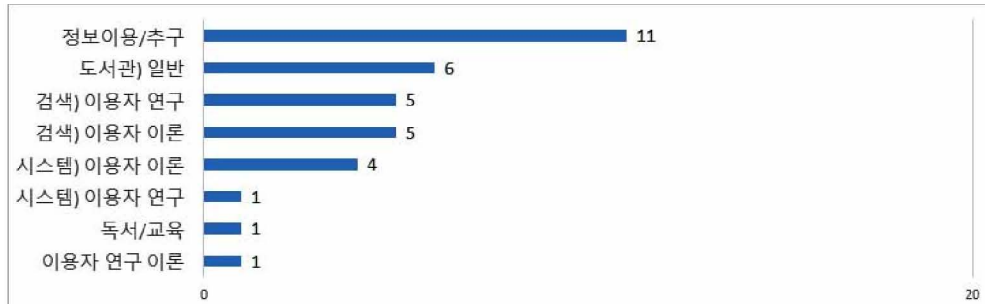
지역생활정보의 이용실태, 한국과학자들의 해외 정보의존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용자 정보추구/이용 행태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고, 이용자가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요인을 탐구하는 논문도 생산되었다. 또한 이용자 측면에서 고려한 정보시스템 설계, 이용자 중심의 정보검색시스템 구축, 이용자 최적화의 정보검색 모색 등 정보학 분야에서의 이용자연구가 80년대와 비교하여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 분야에서는 도서관 이용자의 인식 연구, 자료이용·참고봉사 등 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측면에서의 분석이 있었다(〈그림 6〉 참조).

(단위: 편)



〈그림 5〉 1985~89년의 정보이용자연구 주제 분포

(단위: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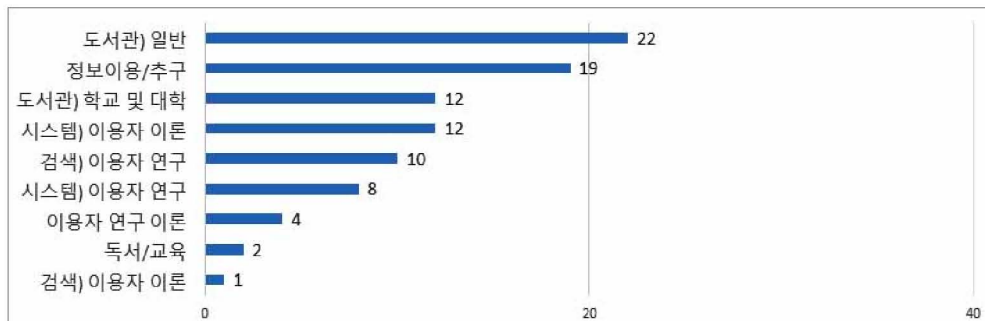


〈그림 6〉 1990~94년의 정보이용자연구 주제 분포

90년대 중·후반에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정보이용자연구가 한 차례의 양적인 팽창을 이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도서관 주제에서의 정보이용자연구가 급증하였으며, 온라인목록과 관련된 이용자연구가 10편에 달하였다. 90년대 중반 이후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이 종합정보시스템으로서, 도서관조직의 외부환경과의 유대를 강조하게 되었다는 흐름을 고려한다면(조인숙, 장경숙, 2006), 온라인목록의 이용자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정보이용/추구 주제에서는 각 분야의 연구자, 사서, 교수 등 전문가

들의 정보이용행태가 주를 이루었다. 정보 설계 및 평가 주제에서도 온라인목록 인터페이스 이용성 평가와 관련된 5편이 있었고, 정보시스템과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정보검색 주제는 정보검색자의 행태와 특성, 시스템의 검색효율 등과 관련하여 정보이용자연구가 이루어졌다. 독서/교육 주제에서는 독서치료에 대한 연구가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상상력에 미치는 독서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는 등 독서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했다(〈그림 7〉 참조).

(단위: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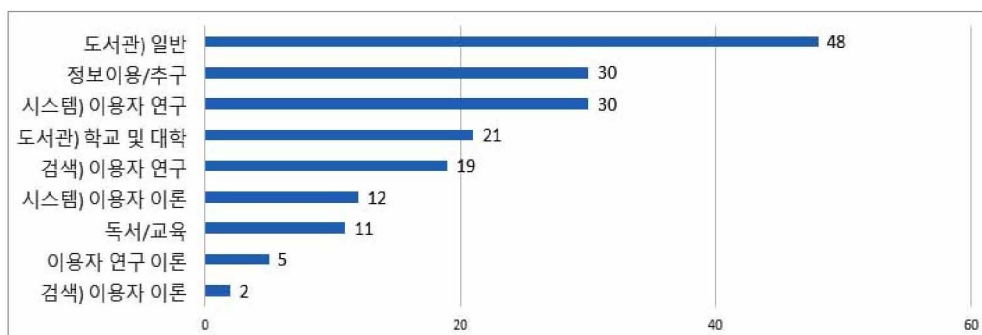
〈그림 7〉 1995~99년의 정보이용자연구 주제 분포

90년대를 지나, 2000년대 초반까지 발표되는 학술논문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정보이용자연구 또한 전체적인 연구 중에서 대략 10% 중·후반의 비율을 유지했다. 이는 20세기 후반(1981~)과 21세기 초반에 이르러 해외에서의 이용자 정보추구 모형 연구가 활발했던 것과 연관시킬 수 있다. 전반적으로 2000년대 초반의 국내 정보이용자연구는 도서관 주제의 강세가 지속되었다. 도서관 이용자 불만족에 대한 연구, 이용자 중심적인 도서관 서비스 구축에 대한 연구 등이 주요 연구 주제였다. 정보이용/추구 주제 분야의 경우 특정 분야, 소외 집단, 특정 연령대의 정보이용자 연구를 비롯하여, 웹 이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의 정보이용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독서/교육 주제가 이전 시기들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독서치료, 독서캠프, 독서교육, 독서부진 요인 연구 등 독서의 효용에 집중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정보설계 및 평가 주제는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구축, 웹 페이지 설계 등의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다(〈그림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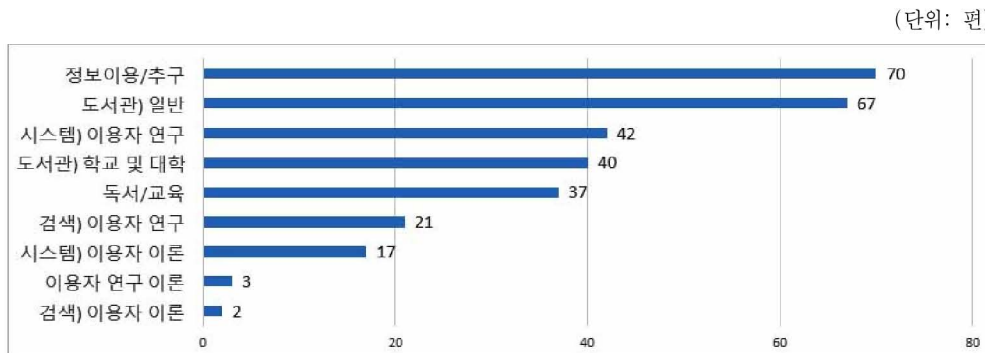
200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전체 학술논문 대비 정보이용자연구의 비율은 20%를 넘어선 시기였다. 전 주제에 이르러 이용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했으며, 특히 정보이용/추구 주제에서는 2000~04년 시기에 1편 밖에 없었던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연구가 장애인, 노령층, 교도소 수용인, 저소득층, 이주민, 새터민 등의 여러 정보빈곤층들의 정보행태연구로 확대된 것이 두드러졌다. 도서관 주제에서 또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연구, 도서관 및 서비스의 만족도 등이 연구되었으며, 독서/교육 주제에서 성장시기별 독서실태, 독서치료, 독서지도 연구가 이전 시기와 같이 지속되었다. 한편 정보설계 및 평가 주제에서는 웹사이트 설계, 디자인, 이용성평가 연구가 수행되었고, 정보검색 주제에서는 이용자의 검색 행태 분석, 검색 요구 분석, 검색 시스템 향상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그림 9〉 참조).

2010년대에 들어서는 도서관 주제에서의 정보이용자연구 증가가 두드러진다.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연구,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요구분석, 기대수준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용자

(단위: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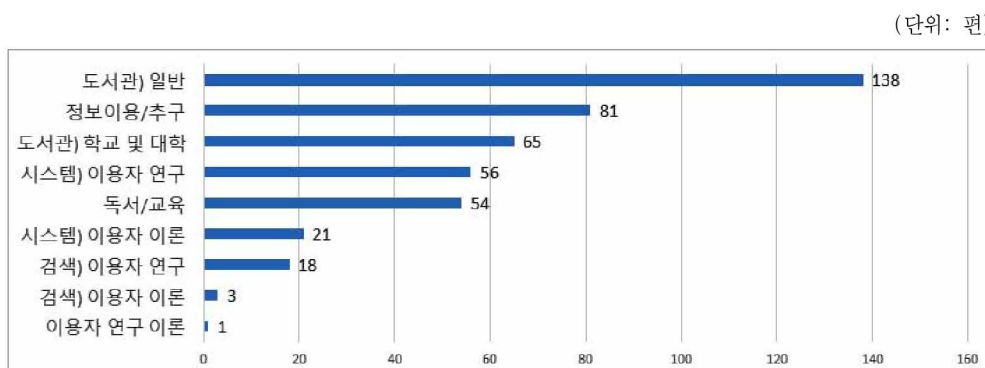
〈그림 8〉 2000~04년 정보이용자연구 주제 분포



〈그림 9〉 2005~09년 정보이용자연구 주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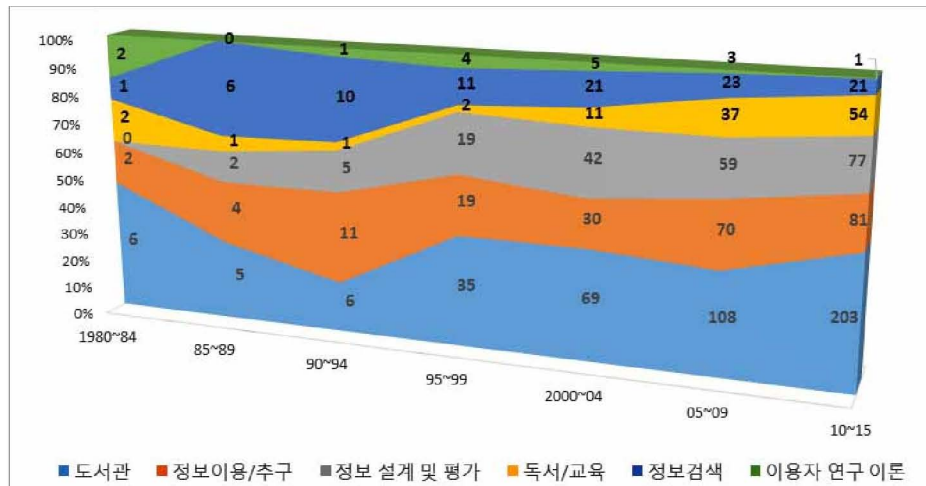
지향적 도서관 개발과 운영, 이주민·노인·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이용자연구가 2000년대 중·후반과 같이 지속되었다. 정보이용/추구 주제에서는 전문직, 대학생, 노령층, 청소년, 이주민 등 특정 정보이용계층의 정보이용행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SNS 이용자 연구,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이용자들의 정보이용행태 연구 등이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이용자연구가 기술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보 설계 및 평가 주제에서는 인터페이스 연구를 종합하는 분석연구, 인터페이스에 따른 정보매체 이용 영향 연

구, 특정 서비스의 인터페이스 설계와 구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특정 웹에 대한 접근성 평가와 이용자 만족도 연구가 수행되었고, 온라인목록의 개선과 향상을 위한 이용자연구, 전자책을 비롯한 전자출판물의 이용성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보검색 주제에서는 이미 지 검색에서의 이용자 연구가 2000년대 초반 두 편의 연구에 이어 다시 등장하였다. 이용자들의 검색 행태에 대한 분석, 개인화 검색시스템에 대한 연구, 검색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구 분석 등의 연구 등이 또한 수행되었다(〈그림 10〉 참조).



〈그림 10〉 2010~15년 정보이용자연구 주제 분포

(단위: 편)



〈그림 11〉 기간 별 정보이용자연구 주제 분포

다음은 대분류 6개 주제의 연도별 분포를 관찰하였다. 우선, 연구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연구된 정보이용자연구의 주제 분야는 ‘도서관’ 분야(일반: 285편, 학교 및 대학: 145편, 총 430편)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보이용/추구’(217편), ‘정보 설계 및 평가’(205편), ‘독서/교육’(108편), ‘정보검색’(93편), ‘이용자연구 이론’(16편)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표 4>, <그림 11>을 참고하면 국내 정보이용자연구 대주제들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도서관’, ‘정보이용/추구’ 주제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비슷하다. 90년대 중반부터 해당 주제의 논문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서관’ 주제는 정보이용자연구 논문을 가장 많이 생산하면서, 정보이용자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정보 설계 및 평가’ 주제 또한 90년대 중반부터 발표되는 논문이 증가하였으며, 연구 결과물의 양적인 측면에서 ‘정보이용/추구’ 주제

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되었다. 앞선 두 주제와는 달리 정보이용자연구의 초창기에는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2000년대 들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정보이용자연구의 주요 주제로 자리잡았다.

‘정보검색’ 주제의 경우, 정보이용자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들어 감소하였는데, 이용자에게 입각한 연구 보다는 검색기법, 시스템, 모형 자체에 대한 연구와 그 응용연구가 우세하기 때문이었다.

한편, 독서/교육 주제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그 생산이 증가하였다. 여러 타 정보매체와 각종 전자기기에 독서행위 자체가 잠식되고, 그에 따른 독서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독서에 의한 자기개발, 심리발달, 치료 등 독서의 효과와 효용에 대한 논문들이 해당 주제에서 주된 흐름을 이룬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정보이용자연구 이론 주제의 경우, 기존의 이

〈표 4〉 기간 별 정보이용자연구 세부 주제 분포표

(단위: 편)

연도	도서관	정보이용/추구	정보 설계 및 평가	독서/교육	정보검색	이용자 연구 이론
1980	2	1	0	0	0	0
1981	0	0	0	2	0	0
1982	3	0	0	0	0	0
1983	0	0	0	0	0	0
1984	1	1	0	0	1	2
1985	0	1	1	0	5	0
1986	0	0	0	0	0	0
1987	0	3	0	0	0	0
1988	2	0	0	0	1	0
1989	3	0	1	1	0	0
1990	2	3	0	1	1	0
1991	0	0	1	0	3	0
1992	1	3	1	0	1	1
1993	2	3	0	0	1	0
1994	1	2	3	0	4	0
1995	4	2	2	0	1	1
1996	9	3	1	0	4	0
1997	6	5	9	0	1	0
1998	10	4	4	1	3	1
1999	6	5	3	1	2	2
2000	7	6	9	0	9	0
2001	18	5	5	2	2	0
2002	19	7	10	1	4	1
2003	11	3	9	4	4	3
2004	13	9	9	4	2	1
2005	16	14	8	5	3	1
2006	16	17	14	9	6	2
2007	25	7	20	9	2	0
2008	23	14	7	9	4	0
2009	27	18	11	5	8	0
2010	30	10	8	7	6	0
2011	29	11	21	11	3	0
2012	36	19	12	8	4	0
2013	29	15	13	8	1	1
2014	38	15	10	11	3	0
2015	41	11	13	9	4	0
합계	430	217	205	108	93	16

론과 모형을 분석하거나 경향분석, 비교 연구를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다. 아직까지 선진적인 이론과 모형을 국내 환경에 맞추어 각종 실증적인 연구들에 적실하고 유효하게 적용 및 해석을 도모하는 연구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내의 경우 이용자 지향적인 연구가 집적되어 모형 개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방향성을 보여 준다.

5. 정보이용자연구 활용성 제고 방안

정보이용자연구는 앞선 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양한 범주(인구학적, 사회학적 특성 등)에 속하는 인간과 그를 둘러싼 환경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정보이용자연구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말미암아, 이용자연구에서 이끌어낸 연구 결과의 활용은 문헌정보학계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문환경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타 연구영역에서의 활용 또한 가능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 고령층 정보이용자의 정보행태는 복지정책 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이고, 사회복지학에서도 의미 있는 관련 연구로써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사회복지 환경은 급변하여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욕구의 분출에 따라 그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의 양과 범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이봉주, 2013), 이러한 사회복지, 사회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개인에 대한 두터운 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므로, '왜'와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해 두터운 질적연구로서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정보이용자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오늘날 유소년인구(0~1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가 2006년 51.1에서, 2016년 99.5로 급증(국가통계포털, 검색일: 2016.05.25)하는 등 국내 고령층 인구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들의 정보요구와 활동도 과거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김선호, 2002) 상황에서, 고령층의 요양시설입소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시설 관계자가 고령층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사회복지학 연구(이민홍, 강은나, 2013)가 생산되었다. 이 연구는 요양시설에서 입소상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 가이드를 개발하고자 의도되었으며, 문헌정보학 정보이용자연구 관점에서는 해당 연구에서 고령층 사회복지 서비스 참여하는 고령층, 보호자, 사회복지시설 직원 등의 정보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보이용자연구에서 도출된 고령층 연구대상들의 특성, 연구에서 제시하는 결론과 제언 등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타 학문 분야와의 연계와 융합 등을 고려한다면 정보이용자연구의 파급력 증대, 타 학문과의 시너지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보이용자연구 결과의 활용성 제고 방안 예시를 보여주고자 한다. 그 예시란 타 학문분야에서 제기된 사회 문제에 대해, 정보이용자연구 결과와 제언을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 해결 방안의 모색 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1) 타 학문분야에서 제기된 사회 문제 - 고령층의 고립과 외로움

이현지(2012)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립과 외로움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립이란 노화로 인한 사회적 접촉과 관계망이 축소되고 결핍되는 것이고, 외로움이란 고립에 대한 주관적, 정서적 반응이다. 따라서 고령층의 사회적 관계망 확대는 물론, 고령층에게 외로움을 유발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구 절벽이 도래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국내 현실에서 고령층 삶의 만족과 행복 증진을 위해 고령층 인구의 고립과 외로움의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개인 및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은 선택사항이 아닌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개발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정보이용자연구를 통한 착안 - 공공도서관 이용자 연구 결과 참고

박옥화(2007)는 국내의 한 광역시 11개 공공도서관 고령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그 특성을 연구했다. 고령층은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해 자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인식했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 고령층들은 도서관을 통해 여가 생활을 즐기게 되었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자신에게 만족하고, 인생을 즐기고, 삶에 활력이 생겼다 등의 설문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3) 정보이용자연구 결과 활용성 제고

앞서 이현지(2012)는 고령층의 고립과 외로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써,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의 발굴, 위

축된 사회적 관계망의 확대,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고령층에게 인간관계는 사회적인 역할이나 사회적 기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활동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동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또한 적극적인 대인관계는 개인에게 삶의 질적 만족과 낙관적인 태도를 갖게 해준다(고대선, 원영신, 2005).

그러므로 박옥화(2007)의 공공도서관 고령층 이용자(66명)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의 19.7%가 각각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친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로 응답한 결과는 공공도서관이 고령층 대상 프로그램 제공과, 모임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제공을 통해 정서적 측면에서의 고령층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기대하게 한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 고령층들은 대인관계를 획득, 지속, 발전시키고 나아가 정서적 안정성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이용자연구는 이러한 정서적인 측면의 만족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단순 설문조사보다는, 심층면담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질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령층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획함에 있어 이용자연구를 통한 세심한 설계와 실행,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가 아닌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예시로 든 정보이용자연구는 연구 범위와 대상이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보이용자들과 밀착하여 그들의 환경과 맥락 등을 면밀히 살펴본 질적인 연구가 미흡했다는 한계로 시스템 중심적 접근의 정보이용자연구이면서, 정보이용자연구의 한 단편에 그칠 수 있다. 하

지만 상술하였듯이, 사회복지학 영역에서 제기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해준다는 연구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렇듯 문헌정보학 외의 분야로 확장 가능한 연구의의는 정보이용자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연구자들은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만 연구의 시사점이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토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980년 이후 국내의 문헌정보학 5개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들을 전수조사하여 국내 정보이용자연구에 대한 주제 분석을 실시하고, 시기별 연구동향을 살펴 정보이용자연구의 학문적인 구조와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연구자들이 정보이용자연구 논문들에 대해 질적인 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기계적인 문헌 분류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양적인 연구동향 분석을 보완하고, Case(2012)가 수행한 정보이용자연구의 질적인 분석과 비슷한 맥락으로, 국내 정보이용자연구에 대한 정리와 집대성을 위한 초기 연구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보이용자연구의 활용성 제고와 타 인접학문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정보이용자연구 결과의 활용 예시를 고령층 정보이용자연구를 통해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연구 기간(1980년~2015년)에 국내 5개 문헌정보학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들을 전수조사(5,392개) 하여 문헌정

보학 정보이용자연구의 분류표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정보이용자연구 주제 분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 분석과 연구 분야 분류는 논문의 초록, 키워드 그리고 본문 내용 분석을 기준으로 실시되었다. 이 방법은 그동안 국내 정보이용자연구 동향분석에서 표제만을 분류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의 연구방법을 보완할 수 있었다. 둘째, 실증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이용, 이용자, 이용자 이론을 지향한 연구도 정보이용자연구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분류된 논문이 81편에 이르러, 정보이용자연구의 동향 파악이 더욱 세밀해졌기 때문에, 해당 분류 항목을 설계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셋째, 여러 개의 분야가 혼합되어 연구된 경우에는 해당 논문 내에서 가장 우세한 분야 또는 연구 방법론을 우선하여 분류하였다. 넷째, 두 분야가 동등하게 다루어진 경우에는, 두 분야가 동시에 속하는 상위 분야에 분류하였다. 설계된 분류표를 통해 정보이용자연구들의 세부 연구 분야를 분류한 다음, 국내 정보이용자연구 주제 분포 파악, 시기별 연구동향 분석, 정보이용자연구와 타 분야와의 연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기별 분석을 위해서 1980~84년, 1985년~89년, 1990년~94년, 1995년~99년, 2000~04년, 2005~09년, 2010~15년으로 나누었고, 그 결과 80년대는 정보이용자연구가 태동하기 시작한 시기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996년을 기점으로 이전까지 10편 미만으로 발표되던 정보이용자연구가 70%의 양적 증가를 보였으며, 이후 오늘날까지 지속적인 정보이용자연구의 성장세가 지속된 것을 확인했다. 국내 정보이용자연구는 1980~84년 연구대상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12.9%(13편)에 불과했

지만, 2010~15년 시기에 이르러 24.1%(417편)에 이르는 양적인 팽창을 이루었다.

동향분석을 통해 현재 정보이용자연구의 과거와 현재를 파악한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국내 정보이용자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었던 주제 분야는 '도서관' 분야로 나타났다. 도서관법에 명시된 공공도서관(작은, 장애인, 병원, 병영, 교도소, 어린이)과 전문도서관을 포함한 일반도서관 주제에 285편이 분류되었고, 학교 및 대학도서관 주제에 145편 총 430편이 분류되었다. 다음으로는 '정보이용/추구'(217편), '정보 설계 및 평가'(205편), '독서/교육'(108편), '정보검색'(93편), '이용자연구 이론'(16편) 순으로 분류되었다.

독서/교육 주제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그 생산이 증가하였으며, 독서의 효과와 효용에 대한 연구가 주요 흐름을 이루었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창의성 교육과 함께, SNS가 일상에 자리 잡은 오늘날,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보다 종이매체를 통한 읽기가 집중력 등에 있어서 진정한 읽기가 된다는 실험 결과(Baron, 2015) 등이 생산되면서, 독서 및 독서행위자에 대한 관심과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헌정보학 각 주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국내 상황에 적절한 정보이용자연구 이론의 발전이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외국의 경우 이용자 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이

용자 특성과 상황의 중요성, 이용자 요구 및 이용행태 등에 대해 밝혀진 부분들이 모형으로 개발된 경우가 다수 있는데, 국내의 경우는 아직까지 이용자연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며 따라서 개발된 모형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이지연(2006)의 연구가 여전히 유효한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동향분석 결과, 향후 정보이용자연구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용자 특성, 주변 환경 및 맥락, 요구와 행태에 대한 가치 있는 국내 연구들의 지속적인 생산이 그 바탕이 되어 국내의 정보이용자연구 모형과 이론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보이용자연구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기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활동을 인간과 인문 환경을 중심에 두고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정보이용자연구는 본질적으로 높은 활성과 타 분야로의 확장성이 내포되어 있는 연구 분야이다.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문제, 특히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학 논문과 이와 관련된 고령층 정보이용자연구 논문을 예시로 삼아 정보이용자연구의 활용성과 확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이용자연구의 연구의의가 고양되고, 연구자들이 연구 설계부터 적극적으로 타 분야와의 연계와 협업을 염두에 둔, 한층 넓은 시야의 정보이용자연구를 수행하기를 고대한다.

참 고 문 헌

- 고대선, 원영신 (2005).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의 의미.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4, 413-424.
- 구중억, 이응봉 (2009). Open API 기반 메타 검색시스템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1), 185-214. <https://doi.org/10.3743/kosim.2009.26.1.185>
- 국가통계포털 (n.d.). Retrieved from <http://kosis.kr/>
- 권은경 (1984). User study의 추이 및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1, 19-43.
- 김갑선 (2005). 정보추구행태 모형의 연구 경향. 정보관리학회지, 22(4), 235-254. <https://doi.org/10.3743/kosim.2005.22.4.235>
- 김선호 (2002). 공공 도서관의 노인 서비스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4), 101-123.
- 김선호 (2003). 공공도서관의 노인용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111-124.
- 노진구 (2000). 이용자기반 접근의 개념 변화와 정보검색시스템 설계요소의 도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3), 89-113.
- 박옥화 (2007). 공공도서관 고령 이용자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375-396. <https://doi.org/10.16981/kiss.38.1.200703.375>
- 서은경 (1997). 정보학분야 연구동향분석: 정보관리학회지와 JASIS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4(1), 269-291.
- 서은경 (2010). 정보관리학회지 연구의 동향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7(4), 7-32. <https://doi.org/10.3743/kosim.2010.27.4.007>
- 손정표 (2003).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분석: 1957~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9-32.
- 유사라, 박민영 (2000). 데이터베이스 실험검색을 통한 정보스캐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1), 111-132.
- 이민홍, 강은나 (2013). 노인요양시설의 입소과정에서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2), 23-44.
- 이봉주 (2013). 지역복지기관의 사회서비스 관리와 평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1), 197-221.
- 이지수 (2013). 정보행태 연구 분야에서 협동적 정보행태 모형의 비교·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3), 183-205. <https://doi.org/10.3743/kosim.2013.30.3.183>
- 이지연 (2006). 정보이용행태 모형개발 및 적용.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8, 5-10.
- 이현지 (2012). 재가 노인이 경험하는 고립과 외로움이 삶의 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

- 회복지학, 42, 157-177. <https://doi.org/10.15300/jcw.2012.09.42.157>
- 조인숙, 장경숙 (2006). 국내 사립대학도서관 자동화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37(4), 1-23. <https://doi.org/10.1633/jim.2006.37.4.001>
- 조찬식 (1999). 문헌정보학 연구 및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3(3), 45-61.
- 정동열, 김성진 (2003). 문헌정보연구의 이론 활용성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0(1), 165-198.
- 한복희 (1984). 이용자연구의 이론과 실제. 정보관리학회지, 1(1), 100-111.
- 한복희 (1992). 이용자연구에 관한 연구동향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3, 107-125.
- 한복희 (2003). 지식기반사회에서 이용자연구의 최신동향.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4), 295-310. <https://doi.org/10.4275/kslis.2003.37.4.295>
- Baron, N. S. (2015). Words on screen: The fate of reading in a digital world. USA: Oxford University Press.
- Case, D. O. (2012). Looking for information: A survey of research on information seeking, needs and behavior. Bingley: Emerald Group Publishing.
- Choo, C. W. (1993). Environmental scanning: Acquisition and use of information by managers.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8, 279-314.
- Julien, H. (1997). A content analysis of the recent information needs and uses literatur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8(1), 53-65.
- Julien, H., & Duggan, L. J. (2000).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information needs and uses literatur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2(3), 291-309. [https://doi.org/10.1016/s0740-8188\(99\)00057-2](https://doi.org/10.1016/s0740-8188(99)00057-2)
- Julien, H., Pecoskie, J. J., & Reed, K. (2011). Trends in information behavior research, 1999-2008: A content analysi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3(1), 19-24. <https://doi.org/10.1016/j.lisr.2010.07.014>
- Julien, H., & O'Brien, M. (2014). Information behaviour research: Where have we been, where are we going? Canadian Journa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38(4), 239-250.
- Rieh, S. Y. (2007). A comparison of Web searching and library system searching: Perceived difficulty, self-efficacy, and effor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4(2), 29-44. <https://doi.org/10.3743/KOSIM.2007.24.2.029>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Cho, Chan-Sik (1999). A study on research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3(3), 45-61.
- Cho, In-Sook, & Jang, Kyung-Sook (2006). A study on the historical analysis of university library automation in Korea.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Research*, 37(4), 1-23.
<https://doi.org/10.1633/jim.2006.37.4.001>
- Gu, Jung-Eok, & Lee, Eung-Bong (2009). A study on the construction and usability test of meta search system using open AP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6(1), 185-214. <https://doi.org/10.3743/kosim.2009.26.1.185>
- Gwon, Eun-Gyoung (1984). A study on user study and trend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1, 19-43.
- Han, Bock-Hee (1984). Theory and practice of user stud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1), 100-111.
- Han, Bock-Hee (1992). An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 on the information user stud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 107-125.
- Han, Bock-Hee (2003). A study on the current trends of user study at the knowledge based information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4), 295-310. <https://doi.org/10.4275/kslis.2003.37.4.295>
- Jeong, Dong-Youl, & Kim-Sung-Jin (2003). An analysis of theory use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0(1), 165-198.
- Kim, Kap-Seon (2005). Review of research trend in models of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4), 235-254.
<https://doi.org/10.3743/kosim.2005.22.4.235>
- Kim Sun-Ho (2002). The study on the policies for public library services to older person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3(4), 101-123.
- Kim, Sun-Ho (2003). A study on the interface design of the public library for the elderly.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3), 111-124.
- Ko, Dae-Sun, & Won, Young-Shin (2005). The meaning of successful aging of the residing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24, 413-424.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n.d.). Retrieved from <http://kosis.kr/>
- Lee, Bong-Joo (2013).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of community welfare agency's social services: What, why, and how.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15(1), 197-221.
- Lee, Jee-Yeon (2006). An overview of developing & applying information use behavior models.

-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Collection of Theses, 8, 5-10.
- Lee, Ji-Su (2013). A comparative analysis of collaborative information behavior models in information behavior researc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3), 183-205. <https://doi.org/10.3743/kosim.2013.30.3.183>
- Lee, Min-Hong, & Kang, Eun-Na (2013). What information is needed to provide for admission process to nursing homes?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15(2), 23-44.
- Lee, Hyun-Ji (2012). The impact of isolation and loneliness on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in community dwelling elderly -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42, 157-177. <https://doi.org/10.15300/jcw.2012.09.42.157>
- Noh, Jin-Goo (2000). A change of concept of user-centered approach and derivation of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design factor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1(3), 89-113.
- Park, Ok-Wha (2007). A study on the elderly of public librarie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1), 375-396. <https://doi.org/10.16981/kliss.38.1.200703.375>
- Seo, Eun-Gyoung (1997).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patterns in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4(1), 269-291.
- Seo, Eun-Gyoung (2010). Trends analysis on research articles i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7(4), 7-32. <https://doi.org/10.3743/kosim.2010.27.4.007>
- Son, Jeong-Pyo (2003). Trend analysi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Korea: 1957~2002.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3), 9-32.
- Yoo, Sa-Rah, & Park, Min-Young (2000). Information scanning for DB searching & retrieval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4(1), 111-132.